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9학년도 11월 5일 1교시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 답란에 표기하세요.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와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있었노라.’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휘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텐 자리에
⑦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1. <보기>는 (가)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_____ < 보기 > _____

- 영희 : ‘있었노라’라는 시어가 인상적이지 않아?
- 철수 :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을 읽어 봤는데,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시들이 많더라고.
- 영희 : 그래? 마치 대중가요에서 ‘잘 가, 가지마!’하고 노래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 철수 :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작품에서 ‘있었노라’도 화자가 () (이)라고 생각해.

- ① ‘당신’을 꼭 잊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
- ② ‘당신’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
- ③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
- ④ ‘당신’을 향한 그리움을 여성적 어조로 표현한 것
- ⑤ ‘당신’의 결정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

2.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② 3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 ③ 정서를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다.
- 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나)의 밑줄 친 시어 중 그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2점)

- ① 꽃 - 도전 ② 도전 - 바람 ③ 바람 - 사랑
- ④ 사랑 - 황홀 ⑤ 황홀 - 가지

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애란 : 계절의 변화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 ② 보선 : 자연 현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시에 담았어.
- ③ 연수 : ‘눈’을 사람처럼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야.
- ④ 은영 : 감각적 시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 ⑤ 기택 : 의문형 어미를 통해 과거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어.

5.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_____ < 보기 > _____

㉠에 사용된 표현은 (㉡)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럼 보이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한다.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한 다른 예로는 (㉣) 등이 있다.

- | | | |
|------|-------|-----------|
| ㉡ | ㉢ | ㉣ |
| ① 반어 | 현실 부정 | 찬란한 슬픔 |
| ② 반어 | 모순 | 소리 없는 아우성 |
| ③ 역설 | 모순 | 소리 없는 아우성 |
| ④ 역설 | 현실 부정 | 찬란한 슬픔 |
| ⑤ 역설 | 현실 비판 | 소리 없는 아우성 |

[6~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열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 어정어정 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

☞ 뒷면에 계속

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음 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 한 김 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폰, 또는 다섯 폰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킁킁한 목에 모주 한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령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나)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썩 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마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가지고 일어나가는새로에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 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린다.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 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안으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이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중략)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뽯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영영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침지는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겨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라)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척훔척하더니 일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 던졌다. 그 사품에 몇 폰 은전이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치삼은 일변 돈을 줍는다. 김 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것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뺏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이 주워 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엿돈! 이 욕시를 할 ㉥돈!”

(마) “응으,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창이 검은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팻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① 역설적인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주인공의 행동만을 그려내고 있다.
- ④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7. ㉦-㉧ 중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8. (가)-(마) 중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가장 심화되어 나타나는 단락은?(2점)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9. ㉡-㉣ 중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김 침지’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는?(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뒷장에 계속

10. <보기>를 참고할 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같은 것은?(3점)

< 보기 >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뜻밖의 행운을 얻었지만 결국 불행에 맞닥뜨리는 주인공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보여 준다.

- ①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불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③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④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⑤ 아아 님은 갓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 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11.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작품이야.
- ②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적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작품이야.
- ③ 아내와 관련한 장면을 중간에 넣어 김철지의 불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
- ④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시작하여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 ⑤ 각박한 현실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

12. 김철지에게 하루 동안 일어난 일과 그에 따른 김철지의 심리 변화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점)

	김 철지의 하루	심리
①	앞집 마나님과 양복쟁이를 태워다 주고 팔십 전을 받음	마음이 무거움
②	학생을 남대문 정거장까지 태워주고 일 원 오십 전을 받음	아내에 대한 걱정, 행운에 대한 기쁨
③	승강이 끝에 큰 가방을 든 사람을 인사동까지 태워다 줌	아내에 대한 고마움
④	선술집에서 치삼을 만나 술을 마심	불길한 예감, 돈에 대한 감사
⑤	무덤같이 조용한 집에 돌아옴	아내에 대한 비난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나)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匠人),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 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중략)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건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툭툭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맷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 내어, 모자에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중략)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선 군수가 서명하고,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증인으로서 서명함.

☞ 뒷면에 계속

(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
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주
십시오.”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중략)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
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들 먼저 자기 땅을 갈
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을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네놈들 코에 잣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귀밑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
겠느냐?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
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13. (가)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생겨났다.
- 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양반들이 존재했다.
- ③ 신분에 따라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 ④ 신흥 계층이 등장해 신분제가 더욱 굳건해졌다.
- ⑤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14. (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점)

- ① ‘부자’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 ② ‘양반’과 ‘부자’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 ③ ‘아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은 무능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 ⑤ ‘군수’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있다.

15. ㉠,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방식 상의 특징은?
(3점)

- ①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문제점을 지적함.
- ② 대상을 비난하여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을 형성함.
- ③ 대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드러냄.
- ④ 독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상을 평가할 수 있게 함.
- ⑤ 비속어를 사용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
으로 드러냄.

16. (나), (다)의 증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은?
(3점)

(나)

- ① 부도덕함
- ② 무위도식
- ③ 허례허식
- ④ 부정부패
- ⑤ 허장성세

(다)

- 허장성세
- 허례허식
- 부도덕함
- 무위도식
- 부정부패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문왕이 한여름에 높고 밝은 방에 거처하면서 설총을
돌아보며 말했다.

“**(중략)**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을 터인
데, 어찌 나를 위하여 말해 주지 않는가?”

“예. ㉡신이 예전에 꽃의 왕인 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왕을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
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뛰
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
고 어여쁜 꽃들이 빼짐없이 달려왔지요.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홀연히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
을 차려입은 이 하나가, 간들간들 걸어와 얇전하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참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미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
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
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또 한 사내가, 배웃에 가죽띠를 매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
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밖의 한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
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의 빗갈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생기는 것이 풍족하
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
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
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
로 옛말에 사마(絲麻)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관과(管
蒯)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는 만에 하
나 결핍에 대비해야 한다 하였습지요.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꽃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붙들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
습니까?’

‘사내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여쁜 여자는 얻기가 어
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자 사내가 왕 앞에 다가섰습니다.

‘저는 ㉤대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왔
더니, 지금 보니 그렇지 않군요. 무릇 임금 된 사람치고 간사
한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으며, 풍
당은 낭서 정도로 지내다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도
리가 이러하였거늘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대답하였다는군요요.”

이에 신문왕이 얼굴빛을 바로 하며 말했다.

“㉧그대의 우화(寓話)는 진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도다.
기록해 두어 왕이 된 자의 경계로 삼기 바란다.”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 뒷장에 계속

17. 이 글에 삽입된 ‘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되었다.
- ② 고사를 활용해 주제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인간 세계의 모습을 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두 인물을 설정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8. 지시 대상이 같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2점)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19. 의미상 ㉠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3점)

- ① 설총 ② 장미 ③ 할미꽃
- ④ 맹자 ⑤ 풍당

20. <보기>의 학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보기 >

학습 활동: 하나의 문장이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알아보자.

활동 1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픈니다.

상황: 화자가 식사량이 적어 음식을 더 먹고 싶을 때	상황: 연습하고 있는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할 때
의미: ㉠	의미: ㉡

활동 2 지금 안전띠를 매지 않으셨습니다.

상황: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띠를 매도록 할 때	상황: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아 범칙금을 내야 함을 알릴 때
의미: ㉢	의미: ㉣

결론 ㉤

- ① ㉠ : 음식을 더 먹고 싶으니 더 주십시오.
- ② ㉡ : 앞으로 더욱 많은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 ③ ㉢ : 안전 운전을 위하여 안전띠를 매십시오.
- ④ ㉣ : 법규를 위반했으니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 ⑤ ㉤ : 같은 문장도 문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2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2점)

< 보기 >

- 작은아버지: 쌀을 사서 우리 조카 맛있는 거 해 줘야지
- 조카: 작은아버지, 쌀이 이렇게 많은데 또 사요?
- 작은아버지: 시골에서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 조카: 도시에서 쌀을 산다고 할 때와는 뜻이 정반대네요.
- 작은아버지: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을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 ① 지역에 따라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서로 다른 의미로 생각한 말은 ‘쌀을 사다’이다.
- ③ 같은 말도 성별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다.
- ④ 조카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고 생각했다.
- ⑤ 작은아버지가 말한 의미는 ‘돈을 주고 쌀을 구입하다’이다.

22. 그림에서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3점)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기자 회견장

- ①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② 지금 몇 시인지 꽤 궁금합니다.
- ③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④ 이제 기자 회견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 ⑤ 계속 답변을 하다 보니 매우 재미있습니다.

23.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문장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음성으로 실현된 것을 담화라고 한다.
- ② 담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③ 담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 ④ 담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고려할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지역, 세대, 성별, 문화 등이 있다.
- ⑤ 담화 상황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직설적 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뒷면에 계속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판독(判讀)하고 거기에 담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읽기는 문자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글에 담긴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에서 생략되거나 암시(暗示)된 내용을 미루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읽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다) 글을 읽기 전에 독자는 자신이 그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책의 제목이나 차례, 도표, 삽화 등을 훑어보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거나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홉 살 인생”이라는 책을 읽을 때, 먼저 제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표지와 차례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글의 갈래가 ‘소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볼 수도 있다.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 독자는 읽을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글의 내용에 더욱 쉽게 다가가게 된다.

(라) 글을 읽는 중에는 글 속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거나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이 좋다.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해 보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글의 성격이나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고,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그 논리성과 타당성을 따져 가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장면이나 인물의 심리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감동을 느끼며 감상해야 한다.

(마) 글을 읽은 후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구조도를 만들어 보면서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글쓴이의 견해나 관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견주어 글을 비판하거나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더 찾아 읽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되돌아본다. 독자는 이러한 읽기 과정을 통해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24.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3점)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 주장과 근거를 찾는다.
- ② 정보를 전달하는 글: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 ③ 정서를 표현하는 글: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서 읽는다.
- ④ 정서를 표현하는 글: 인물의 심리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읽는다.
- ⑤ 주장하는 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 가며 읽는다.

25. (나)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읽기 방법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양반전’을 읽고 모르는 낱말을 정리했다.
- ② ‘공작 나방’을 읽고 자세한 줄거리를 공책에 썼다.
- ③ ‘만덕전’을 읽고 만덕이 금강산을 구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 ④ ‘운수 좋은 날’을 읽고 아내의 죽음에 당시 사회의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 ⑤ ‘기억속의 들꽃’을 읽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비판하였다.

26. <보기>의 단락이 들어갈 부분으로 옳은 것은?(3점)

< 보기 >

(A) 예를 들어, 잔디밭에서 “잔디가 아파요.”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이를 곧이곧대로 잔디가 병을 앓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읽는 이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잔디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지식과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움푹 팬 잔디밭을 본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표지판이 ‘잔디밭 출입 금지’라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B)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읽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의 줄거리나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양치기 소년에게 거짓말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 또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양치기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기도 하고,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둔 어른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따져 보기도 한다.

(C) 예를 들어, 똑같이 ‘독도’라는 제재를 다룬 글이라 하더라도 독도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인지, 독도를 지키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글인지, 독도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인지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 ① (A) - (가)의 앞, (B)- (나)의 뒤, (C)- (마)의 뒤
- ② (A) - (가)의 앞, (B)- (다)의 뒤, (C)- (라)의 뒤
- ③ (A) - (가)의 뒤, (B)- (나)의 뒤, (C)- (다)의 뒤
- ④ (A) - (가)의 뒤, (B)- (나)의 뒤, (C)- (라)의 뒤
- ⑤ (A) - (가)의 뒤, (B)- (다)의 뒤, (C)- (마)의 뒤

☞ 뒷장에 계속

27. 이 글의 (가), (다)와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3점)

	(가)	(다)
①	테니스는 둥근 공, 배드민턴은 셔틀콕을 사용한다.	별레를 잡아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레잡이풀은 별레를 잡는 주머니로 별레를 잡습니다.
②	행복이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감정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역대 축구 선수에는 차범근, 박지성, 이영표 등이 있다.
③	철구는 철수세미처럼 꼬인 머리에 연탄처럼 검은 피부, 귀퉁만한 눈을 가진 불품없는 녀석이었다.	집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양철집, 슬라브 집이라고 부르는 양회집, 슬레이트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중국집 음식은 식사용과 요리용으로 나눌 수 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모두 라켓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다.
⑤	쌀은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를 이른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 들여 머릿속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불러낸다. 컴퓨터도 그 절차가 인간과 비슷하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제자의 기본 원리는 상형이다. 이것은 초성과 중성에 다 같이 적용된다. 우선 초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다섯 글자가 기본인데, 이들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어졌다.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본떴고,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습을 본떴다.

입술소리 ‘ㅁ’은 입모양을, 잇소리 ‘ㅂ’은 이의 모양을,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을 본떴다.

다음으로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에 획을 더하여, ‘ㅋ, ㆁ, ㆅ, ㆆ, ㆏, ㆐, ㆑, ㆒’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병서는 ‘ㄱ, ㆁ, ㆅ, ㆆ, ㆏, ㆐, ㆑, ㆒’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ㄲ, ㆁ, ㆅ, ㆆ, ㆏, ㆐, ㆑, ㆒’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한글은 같은 발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을 비슷한 모양의 문자로 체계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게 되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탁월한 문자가 되었다.

한편, 중성은 우리가 오늘날 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세 글자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각각 ‘하늘, 땅, 사람’의 삼재(三才)를 상형하였다. ‘ㅏ’는 땅을 본떠서 평평하게 하고, ‘ㅓ’는 사람을 본떠서 그 서 있는 모양으로 하였다. 이 세 글자를 바탕으로 평인 ‘ㅗ’와 하늘인 ‘ㅜ’를 합성하여 ‘ㅛ, ㅠ’를 만들고, ‘ㅓ’와 ‘ㅕ’를 다시 합성하여 ‘ㅜ, ㅠ’를 만들었다. 여기에 다시 ‘ㅏ’를 하나씩 더하여 ‘ㅛ, ㅕ, ㅠ, ㅑ’를 만들어 모두 11자를 완성하였다.

28. 한글의 초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들었다.
- ② 기본자 ‘ㅂ’에 획을 더하여 ‘ㅃ’을 만들었다.
- ③ ‘ㅋ’은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 ④ ‘ㅌ’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 ⑤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하여 ‘ㅎ’을 만들었다.

29. 중성자의 제자 원리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ㅋ’과 ‘ㆁ’은 각각 ‘ㅣ’를 두 번 합쳐 만든 문자이다.
- ② 입술의 오므림과 별림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 ③ ‘ㅏ’는 하늘을 본 뜬 ‘ㅏ’를 ‘ㅗ’의 위쪽에 놓아서 만든 문자이다.
- ④ 기본자는 ‘천지인(天地人)’의 모습을 본떠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하였다.
- ⑤ ‘ㅑ’는 ‘ㅗ’와 ‘ㅕ’를 합성하여 만든 ‘ㅑ’ 두 개를 나란히 겹친 것이다.

30. 초성에 잇소리의 가획자가 들어있지 않은 단어 두 개는? (3점)

- ① 가수 ② 태양 ③ 차이
- ④ 자석 ⑤ 패전

31. 각 음절의 중성이 초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는?(2점)

- ① 장소, 수건 ② 여자, 남자 ③ 나이, 마음
- ④ 대장, 가구 ⑤ 하늘, 나라

32.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특징은?(3점)

‘사과, 천사, 자동차’에서 ‘ㅏ’는 모두 같게 발음되지만 ‘apple, angel, car’에서 ‘a’는 모두 다르게 발음된다.

- 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들었다.
- ② 비슷한 소리를 비슷한 글자로 표기한다.
- ③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
- ④ 음소를 분석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 수 있다.
- ⑤ 성조에 따라 같은 글자도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 뒷면에 계속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랏·말·ㅅ·미 中 國·꺠·에 달·아 文 文 字·
 쯤·와·로 서르 (ㄱ)스뵐 ·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꺠姓·성·이 (ㄴ)니르·고·저
 ·홀 ·배 이·셔·도 ㅁ·츄·내 제 ·쁘·들 (ㄷ)시·러
 퍼·디 :몬홀 ·노·미 (ㄹ)하·니·라 ·내 ·이·를
 爲·왕·ㅎ·야 : (ㅁ)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똥 字·쯤·를 링·ㅁ노·니 :사람:마·다 :히·애 :
 수·비 니·겨 ·날 ·로 ·뿌·매 便便安한·키 ㅎ·
 고·저 홀 썩르·미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연해본

(나) 지금 우리가 ㉢정확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리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 대왕은 글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한문을 아는 극히 적은 수의 특수층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워야 하는 민중을 위해 이 글자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집안이 아니거나 하는 여자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예측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여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 ㉧‘앞글’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글이 우리나라 여자들의 지위 향상에 크나큰 이바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한문 배우기와 쓰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15세기부터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글자 아는 사람과 글자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고, 글자 아는 사람은 다시 한자 아는 사람과 한자는 모르되 한글은 아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민중은 한글로 글자살이를 하는 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하여 17세기 무렵부터는 대중 소설이 발달하여, 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해 나갔던 것입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등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글 소경과 글자살이의 혼란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임을 깨닫고 한글만으로 된 신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한글은 우리글이니 우리가 한자 대신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이 글자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신문을 한글만으로 적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에, 우리 글자살이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이상은 일제의 무력 침략에 부딪혀 계승·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 학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글쓰기를 통일하는 데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조선어 학회’에서는 주시경의 학문을 이어받아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어 학회에서는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전국 각지에 한글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과감히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33. (가)의 ㉠부분에 드러난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자주 정신 ② 실용 정신 ③ 애민 정신
 ④ 평등 정신 ⑤ 창조 정신

34. (가)의 ㉡가 의미하는 바를 (나)에서 찾으려면?(3점)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5. (가)의 (ㄱ)~(ㅁ)의 의미로 옳은 것은?(3점)

- ① (ㄱ) - 알맞지 ② (ㄴ) - 도달하고자
 ③ (ㄷ) - 싫어 ④ (ㄹ) - 많다
 ⑤ (ㅁ) - 예쁘게

36. 밑줄 친 ㉢의 의미로 옳은 것은?(2점)

- ① 크고 위대한 글
 ② 여자들의 쓰던 글
 ③ 백성들을 위한 글
 ④ 우리나라 고유의 글
 ⑤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글

3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3점)

- 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한문 배우기와 쓰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게 되었다.
 ②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은 과학성과 실용적 특성을 지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루 보급되었다.
 ③ 17세기 무렵 양반층을 위하여 한글로 쓰여진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대중소설이 발달하였다.
 ④ 19세기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은 ‘독립 신문’이 창간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학자들은 우리말과 글을 연구, 정리하고 글쓰기를 통일하였다.

-----<끝>-----

※ 선택형 37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37문항)	100

(2)학기 (기말)고사 (3)학년 (국어)정답

선택형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3	21	1, 2
2	5	22	1, 4
3	4	23	5
4	5	24	1
5	3	25	1, 2
6	5	26	4
7	3	27	2
8	3	28	2
9	5	29	3, 4
10	1	30	1, 2
11	5	31	1
12	2	32	3
13	4	33	1
14	4	34	2
15	1	35	4
16	3	36	2
17	4	37	5
18	4		
19	2		
20	5		

서·논술형 정답

번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